



Received: 2026/08/27
Revised: 2026/09/04
Accepted: 2026/09/11
Published: 2026/09/30

***Corresponding Author:**

Seong-In Cho

25747, Unit 102, No. 1503, 60 Pyeongneung 1-gil,
Dong Hae-si, Gangwon State, Republic of Korea
E-mail: love12loj@naver.com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실주의의 대표 이론인 세력균형 측면에서 북한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한국 해군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세력균형 측면에서는 내·외부균형 평가를 통하여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건조 의의를 평가하였다. 먼저, 내·외부 평가 결과 최현호급 구축함은 북한 해군력을 강화하고 핵 발사 수단을 확장시키면서, 북한-중국-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호위함급 수상함의 전력 강화, 유·무인 항공모함 건조,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K Navy's response to North Korea's Choe Hyon-class destroyer from a balance-of-power perspective. Internal and external balancing assessments show that the destroyer strengthens North Korea's naval power, expands its nuclear delivery capabilities, and enhances military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ROK Navy frigates, developing manned and unmanned aircraft carriers, and enhancing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Keywords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북한(North Korea), 최현호급 구축함(Choe Hyon-Class Destroyer), 핵 무기(Nuclear Weapon), 해군(Navy)

세력균형 측면에서 북한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한국 해군 대응방안: 최현호급 구축함의 내·외부 균형평가를 중심으로

South Korean Navy's Response to North Korea's Choe Hyon Class Destroyer from a Balance of Power Perspective: Internal and External Balancing

조성인^{1*}, 김영재²

¹해군 소령/제1함대사령부 작전참모실 상황팀장

²해군 소령/제1함대사령부 군수참모실 전투체계/무장과장

Seong-In Cho^{1*}, Young-jae Kim²

¹LCDR, ROK Navy/ROKN 1st Fleet, Chief Operations Situations Team, Operations Staff Office

²LCDR, ROK Navy/ROKN 1st Fleet, Combat Systems & Weapons Officer, Logistics Staff Office

1. 서론

북한은 최근 최현호급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를 건조하여, 미사일 발사 등 전투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1]. 김정은이 2011년 집권 시에는 잠수함, 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을 강화하였으나, 2023년 이후 구축함을 건조하여 해군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2]. 또한 북한은 한·미·일 군사적 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 중인데, 북·중·러 연합 해군훈련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력균형 측면에서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내·외부 균형평가를 실시하여 의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수상함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핵 발사 수단을 확대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최현호급 구축함이 중국, 러시아와 연합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현존전력 중 주 전력인 호위함의 성능을 개량하고, 유·무인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한·미·일 간 군사적 협력 강화

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최현호급 구축함의 제원을 살펴본 후 4장에서는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5장에서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세력균형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은 국제 체제 현상을 설명하는 현실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국제관계를 힘의 정치로 설명한다[3].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보다 높은 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다른 나라를 견제하고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세력균형이론은 월츠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그는 국가 생존수단은 ‘힘’, 즉 군사력이라고 생각했다[4]. 현실주의자는 힘의 증강을 위한 방법으로 내적균형과 외적균형을 설명하였는데,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은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군비증강, 구축함·전투기 생산 등의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고,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은 동맹, 연합훈련 등 국가 간의 협력 형태로 나타난다[5].

3. 최현호급 구축함 제원

북한은 2025년 4월 남포조선소에서 최현호를 진수하였으며, 이후 약 1년에 걸쳐 작전수행능력평가를 실시 중이다[6]. 북한은 최현호급 구축함이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통해 육상타격 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다목적 수중작전 수행함선임을 강조하였으며[7], 공개된 주요 전략·전술 무기들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3].

Table 1. Specifications of strategic and tactical weapons of the Choe hyon-class destroyer

Category	Weapon system	Estimate range(km)	Remark
Supersonic cruise missile	–	1,000	–
Strategic cruise missile	Hwasal-2 Series	1,500~2,000	Nuclear warhead
Tactical ballistic missile	Hwasong-11 class	600	Nuclear warhead

진수 이후 진행되는 전투수행능력평가는 크게 1단계 함 무장체계 전투적용성 시험부터 6단계 작전운용평가시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5단계는 국가 전략 무기 통합지휘체계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통해 핵·전략 무기 발사 단계를 점검하고, 6단계에서는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헤미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최현호급 구축함을 핵 전략 플랫폼으로써의 운용능력을 평가한다. 전투수행능력평가의 각 단계별 내용은 Table 2와 같다[3].

Table 2. Assessment of the combat capabilities of the Choe Hyon-class destroyer

Stage	Details
1	Combat application test of weapons systems
2	Integrated operation test of weapons systems
3	Operational capability evaluation
4	Operational capability evaluation (Strategic strike test)
5	Operational capability evaluation (Integrated system verification)
6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7	Completion of operational deployment and handover to the navy

항해능력은 파랑패턴으로 보았을 때 25 kts 이상의 고속항해가 가능하다[3]. 다만 북한산 가스터빈과 선박용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면, 비슷한 크기의 일본 모가미급의 항속거리(8,000 NM)와 러시아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의 항속거리(4,000 NM)를 고려했을 때, 최현호급의 항속거리는 약 2,000 NM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다[8]. 한국 작전구역에 북한선박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남포에서 청진까지 이동 시에 필요한 항해거리(1,215 NM)를 고려한다면[9], 최현호급 구축함은 한반도에 한해 원거리 항해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4.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내·외부 균형평가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차례의 핵 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였다. 즉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 발사 수단은 미사일 또는 잠수함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현호급 구축함 건조는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10].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최현호급 구축

함의 건조 의의를 확인한다.

4.1 내부 균형평가

첫 번째로 구축함 건조를 통해 해군력 그 자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해군은 수상함 총 800여척이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소형 전투함 위주의 편성, 노후 선체 등에 의해 작전범위와 지속능력이 크게 제약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이후 2023년 9월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현장에서 김정은이 탑승한 미상의 신형 수상함정 ‘경비함 661호’가 포착되면서, 북한 해군력 강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경비함 661호’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군은 일반적인 수준의 함대함 미사일로 발표하였으며[11], 핵 위험 분석기관인 ONN(Open Nuclear Network)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대잠·대공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평가하였다[12]. 즉 ‘경비함 661호’의 원해 작전능력은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최현호급 구축함의 건조를 통해 원해 작전이 가능해졌고, 전략·전술 무기를 다수 탑재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핵 발사 수단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약 21종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개의 미사일에는 핵 탄두가 탑재가능한 것으로 공개되었다[13]. 또한 ICBM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적 목적인 ‘미국 개입 전 한반도 전장지배’는 최현호급 구축함 건조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4]. 따라서 핵 탄두를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현호급 구축함은 수상함 전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북한이 전술용(단·중거리) 80~200발, 전략용 25~35발의 다수 핵 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되기에[15], 핵 무기 발사에 있어 수단과 탄두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최현호급 구축함 건조는 실질적인 핵 위협이라 평가할 수 있다.

4.2 외부 균형평가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3개국 간의 군사협력이 제도화되었다[16]. 이에 대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2025년 9월 전승절 참가 및

러우전쟁 군사파병,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거리 항해 능력을 갖춘 최현호급 구축함은 북·중·러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러시아의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북한에 북·중·러 연합해상훈련을 제안하였으며[17], 중국·러시아 군함들은 Table 3와 같이 한국 관할해역에서의 활동을 증가시켜, 한반도 인근에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18,19].

Table 3. Number of Chinese and Russian naval activities in waters under ROK jurisdiction

Category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China	220	260	240	360	330	350
Category	2016	2017	2018	2019	2020	
Russia	30	20	10	50	20	

또한 Table 4와 같이 한국은 연합훈련을 해군에서 가장 많이 실시했기 때문에[20], 북한도 최현호급 구축함을 통해 북·중·러 연합 해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Table 4. Number of ROK combined training exercise

Category	2020	2021	2022
Army	30	66	66
Navy	88	104	116
Airforce	25	45	56
Marine	20	18	18

5. 한국 해군 대응방안

최현호급 구축함은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수상함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 발사 수단의 실질적인 위협이자, 북·중·러 군사협력에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고 해상에서 북한 핵 발사수단을 감시·정찰 및 타격하며,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5.1 한국 해군 수상함(호위함) 전력 강화

북한은 최현호급 구축함을 4척까지 건조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최현호급에 전략·전술미사일이 다수 탑재되고, 대함미사일 사거리가 300 km가 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에 방사청은 초음속 비행 및 사거리 300~360 km의 스텔스 기능이 향상된 함대함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1], 7천 톤 급의 첫 국산 이지스함을 6척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첫 사업을 한화오션과 체결하였다[22]. 하지만 개발 예정인 대함미사일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향후 건조될 KDDX에 탑재될 예정이고, 7천 톤 급의 국산 이지스함은 업체와의 문제로 2년가량 지연되었다. 따라서 각 함대 주 경비전력인 호위함의 성능 향상을 통해 조기에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해군에서 호위함은 22척 운용 중으로 26척까지 건조할 것으로 계획 중이며[23], 그 중 한 척인 '대전함'은 최근 립덱훈련에 참가하여 원해 작전능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호위함의 성능 향상은 26척의 수상함 전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 가장 단기간 내 북한 최현호급 구축함에 대한 억제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최현호급 구축함을 막 건조하였고, 최대 4척까지 운용할 것이라면 핵심 장비의 자체 수리 및 고가의 부품 수급능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렴한 드론 운용을 통해 작은 피해라도 입히는 것은 최현호급 구축함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호위함의 성능향상이 일정기간의 정비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드론이 해상에서 운용되는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5.2 한국형 유·무인 항공모함

최현호급 구축함을 감시, 정찰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가 필요하다. 최현호급 구축함은 전략·전술 미사일 제원과 항해능력을 고려할 때, 원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국 본토 또는 해상에서 작전중인 함정에 직접·간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특히 최현호급 구축함은 핵 발사가 가능하므로 해상에서 반드시 감시 및 정찰 되어야 하고, 필요

시 정밀타격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는 대다수의 함정이 구형이면서 소형이기 때문에 최현호급 구축함은 중국, 러시아의 함정과 원해에서 같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탐지·추적이 가능하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유·무인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공백없이 위치를 탐지하고 추적해야 하며, 또한 핵 발사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격체계가 함정에 탑재되어야 한다. 또한 최현호급 구축함이 핵 무기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인근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해군도 유·무인 항공모함을 통해 북한 최현호급 구축함과 중국, 러시아 항공모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3 한·미·일 군사력 협력 강화

한·미·일 군사력 협력 강화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시작되었으나 정보공유, 연합훈련 등으로 시행되면서 아직 그 수준이 낮다는 관점이 있다[24]. 동시에 각 나라와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과정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각 국가 간의 관계이다. 일본하고는 영토적 문제[25]와 해결되지 않은 시대적 감정[26]이 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지속합류를 요청하고 있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과의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였다[27]. 즉 각 나라들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국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억제강화에 대한 딜레마이다. 한·미·일 협력강화는 북한을 자극해서 핵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관계 악화를 유도할 수 있다[24].

이처럼 한·미·일 군사력 협력강화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는 정보공유의 범위 확대이다. 중국·러시아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현황은 매년 늘어났고 있으며, 2019년에는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었다[28]. 이는 추후 최현호급 구축함이 한반도 인근 원해에서 활동하면서 중국·러시아 함정, 항공기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은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해 한

반도 인근 뿐 아니라 확장된 구역까지 북·중·러의 협정을 실시간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중국·러시아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협력이다. 최근 중국·러시아 합정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29]. 또한 중국의 해군력 강화 및 한국-중국간의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중국·러시아 군함 척수가 한국·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한국, 일본은 서로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시행되는 중국·러시아 연합훈련에 공조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세력균형 측면에서 북한의 최현호급 구축함 건조에 대해 내·외부 균형평가를 실시하여 건조의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내·외부 균형평가를 통해 최현호급 구축함은 북한의 수상함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핵 발사 수단을 확대했으며, 북·중·러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호위함 전력의 성능을 향상시켜 수상함 전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한국형 유·무인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타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한·미·일 군사적 협력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최현호급 구축함에 탑재될 수 있는 핵 무기는 세력균형 측면에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관점이 존재하고[21], 최현호급 구축함의 실질적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이 유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북한 핵 무기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최현호급 구축함의 실질적 운용 사례를 통해 한국 해군의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유지항, '북, 5천 톤급 최현호 실전배치...김정은 '해군 전투력 경이적'', KBS뉴스, 2026.06.24.
- [2] 정문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해군력 강화연구 -2020년 이후

수상함정 건조를 중심으로-, '해양역사문화, 제14호, 2025, pp. 371-409.

- [3] 김명수, '세력균형(Power Balance)에서의 군사적수준과 동북아시아에 주는 함의,' STRATEGY 21, 제18권 제3호, 2015, pp. 112-162.
- [4]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outledge, 2017.
- [5] 이동선 등, 안전보장의 정책학, 국제관계학 총서, 2010.
- [6] 홍민, '북한의 다목적구축함 '최현'호 개발동향/전략적 함의,' KINU CO26-31, 2026..
- [7] 노동신문, '새시대 해군현대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2025.04.26.
- [8] 김민석, '북한의 미스터리 구축함, 북한 신형 구축함 최현,' 월간 플래툰, 2025년 6월호, pp. 46-49, 90-95.
- [9] 박성제, '원산, 청진 등 7개항, 한국 선박에 개항,' 연합뉴스, 2004.06.05.
- [10] 홍민·김용호·강호제, '북한의 국방기술현대화와 핵 전략: 억제와 전쟁수행,' KINU 연구총서 25-28, 2025.
- [11] 김지현, '김정은, 순항미사일 발사 참관...한미연합연습 반발 '무력시위'', 연합뉴스, 2023.08.21.
- [12] ONN (Open Nuclear Network), Nuclear Risk Assessment: Korea Peninsula, Monthly Report, 2023.
- [13] 노석조, '北, 전술핵탄두 8종 사진 공개... 일련번호·설명까지 보여줬다,' 조선일보, 2023.03.28.
- [14] 장재규, '2026 북한의 군사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2월호, 2026, pp. 45-55.
- [15] RUSI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issile Material and Nuclear Force Structure in North, 2024.
- [16] 이동환,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연합뉴스, 2023.08.19.
- [17] 신규진, '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 한미일 밀착엔 경고메시지,' 동아일보, 2023.09.05.
- [18] 유용원, '중국 함모, 대한민국 관할 해역 진입 '역대 최대' 중국 군함, 한·미 군사기지 앞바다까지 접근,' 국회 국방위 최신뉴스, 2026.04.29.
- [19] 이별남, '한반도 인근 해역 배회하는 중·일 군함 증가,' 뉴스포스트, 2020.10.16.
- [20]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 [21] 김예원, '방사청, KDDX 탑재되는 함대함유도탄-Ⅱ 국내 기술로 개발 추진,' 뉴스1, 2026.08.11.
- [22] 한예나, '한화오션, 8380억원 KDDX 본 계약...수년 수주전 끝내고 '국산 이지스함' 만든다,' 조선일보, 2026.07.31.
- [23] 나무위키, 현대 대한민국 해군 함정.
- [24] 정성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진화와 한미일 억제협력의 과제-정보공유·위기관리·대잠협력의 단계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세종포커스, 2026.06.01.
- [25] 김귀수, '일본 "한국 선박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강력항의",' KBS 뉴스, 2026.08.08.
- [26] 채인택, '친일: 역사의 영역인가, 실존하는 콜레인가?,' 네이버 뉴스, 2026.08.15.
- [27] 김아영, 'UFS 연습 오늘 조기종료...트럼프 지시로 기간·규모 대폭 축소,' SBS 뉴스, 2026.08.21.

[28] 류원혜,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우리 땅" 일본, 뒷북 전투기,' 머니투데이, 2025.07.23.

[29] 유태영, '중·러, 日EEZ서 연합훈련 중 기관총 사격...일본 경계 태세 강화,' 세계일보, 2026.07.22.